

김태성 교수!

나는 아직도 그 봄날의 화사했던 햇살을 기억합니다. 그대가 풋풋한 젊음으로 내 앞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바로 그날 말입니다. 그 햇살같이 맑은 미소를 머금은 그대를 볼 때 내 가슴이 얼마나 설렘인지 모릅니다.

그날의 화사한 햇살은 우리의 만남을 한껏 축하해 주는 듯 했습니다. 사실 그 후 십 년에 걸친 우리의 우정은 그날의 햇살처럼 밝고 깨끗한 것이었으니까요. 그렇지만 그날만큼이나 햇살이 환한 어느 날 아침 그대가 아무 말 없이 우리 곁을 떠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? 믿기지 않는 마음으로 병원을 향해 달릴 때 차창 밖으로 쏟아지는 햇살은 눈이 어지럽도록 화사했습니다. 그대는 화사한 햇살을 안고 왔다가 다시 화사한 햇살을 안고 가버렸군요.

남들은 몇 십 년이 걸려도 이루지 못할 학문적 업적을 그 짧은 삶 동안에 이루어냈다는 칭찬의 말은 구태여 할 필요조차 없겠군요. 내가 말하지 않아도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 잘 알 테니까 말입니다. 그대는 어느 자리에서든 좌중을 훈훈하게 만들어주는 남다른 능력의 소유자란 사실도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. 뛰어난 재치와 막힘없는 박학다식함도 그대의 한 특징이었습니다.

그대가 떠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경제학계는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. 그대가 남긴 공백을 그 어느 누가 쉽게 메울 수 있을까요? 그대는 우리의 척박한 연구풍토에서 눈부신 성과를 이루어 내 주위 사람들의 귀감이 되었습니다. 연구에 대한 집념 하나로 이런저런 방해물 이겨낸 그대의 용기가 눈물겹도록 고맙군요. 그렇지만 그 고독한 싸움 끝의 피로로 쓰러진 그대였기에 우리의 안타까운 마음은 더욱 큼니다. 우리가 옆에서 조금만이라도 도와주었다면 이 엄청난 불행을 막을 수 있었을까요?

우리 경제학부가 입은 손실은 한층 더 큼니다. 그지없이 좋은 동료로 읽은 교수들의 허탈한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. 그대만큼 동료 교수들의 사랑과 신뢰를 듬뿍 받았던 사람은 다시 찾기 힘들 겁니다. 언제나 자기 할 일에 충실했을 뿐 아니라, 남에게도 따뜻한 마음을 아낌없이 나누어주던 그대였으니까요. 멋있고 자상한 스승을 잃은 학생들의 허탈감은 한층 더 클 것입니다. 그대의 빈소에 구름처럼 몰려들어 애도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.

화사한 봄꽃이 산과 들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. 그대가 누워 있는 남녘의 작은 산도 활짝 핀 진달래며 개나리로 가득하겠지요. 봄이 가면 푸른 여름이 오고, 그러다 보면 어김없이 가을, 겨울로 이어질 것입니다. 계절이 바뀌어 가는 모습을 벗 삼아 홀로된 외로움을 달래 보시지요. 이 진세(塵世)의 묵은 피로일랑 말끔히 털어 버리고 말입니다. 언젠가 그대를 사랑했던 모든 사람이 다시 한 자리에 모여 열싸안게 될 날이 올 겁니다.